

# CHAIRPERSON NOTE

## 경제 이슈

- 9월 자본수지 흑자 큰 폭 증가에 의한 원화 가치 상승
- 美,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책 금리 동결

## 경영 노트

- 사회적 책임 경영과 기업 경쟁력

## 사회 트렌드

- 투표 인센티브제
- 10년 후 유망 직종

## 저널 브리프

- 세계 경제의 엔진, 아시아

## 洗心錄

- 경청의 리더십

## □ 9월 자본수지 흑자 큰 폭 증가에 의한 원화 가치 상승

- 9월 자본수지는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 회수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의 해외 증장기 채권 발행과 예금은행의 해외 단기 차입이 증가하여 8월보다 5.8억 달러가 늘어난 약 18.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 부문별로 보면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약 6.8억 달러가 유출이 되고, 외국인들의 국내 직접투자가 약 22.0억 달러 철수하여, 직접투자수지가 28.8억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함
  - 그러나 국내 은행들의 해외 차입분 약 46.7억 달러, 국내 금융 기관 및 기업들의 해외 증장기채 발행분 31.3억 달러 등이 직접투자수지의 적자분을 훨씬 상회함에 따라 자본수지는 흑자(流入超)를 기록함
  - 한편 9월 경상수지는 전월에 비해 상품수지 흑자가 확대되고 서비스 수지 적자가 축소되면서 8월의 6.4억 달러 적자에서 13.7억 달러 흑자로 전환됨(1~9월 누계로는 약 8,300만 달러 적자)
- 우리나라 자본수지의 대규모 흑자는 원화 가치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음

## □ 美,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책 금리 동결

- 美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지난 6월 이후 세 번 연속 연방 기준금리를 5.25%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함
  - 이번 금리 동결은 인플레이 우려에 따르는 금리 인상 압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하강 등에 따르는 내수 경기 위축에 의한 금리 인하 압력이 이를 상쇄하고 있기 때문임
  - 특히 최근 발표된 미국 3/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연율 1.6% (2/4분기 2.6%)에 그쳐, 당분간 추가적인 정책 금리 인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 최근 미국뿐만 아니라,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정책 금리 인상 추세가 약화되고 있어, 국내 정책 금리도 당분간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사회적 책임 경영과 기업 경쟁력

- 경제전문지 포춘은 최근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가장 잘 이행한 기업으로 유럽의 통신회사인 보다폰(Vodafone)을 선정
  - 보다폰은 케냐의 휴대전화 बैं킹 구축, 긴급구호요원의 네트워크 접근성 강화, 휴대전화 어린이 유해물 차단 시스템 마련 등의 공로를 인정받음
  - 2위는 BP, 3위는 로열 더치 셸로 상위 10개 기업이 모두 유럽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46위로 유일하게 순위권에 포함됨
  - 이번 조사는 기업 경영에서 이해 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 경영 투명성, 외부 감독 실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CSR 순위를 산정함
  
- 지속가능경영은 기업 생존의 필수 요소로 향후 기업 활동에서 사회·경제·환경적 이슈를 고려한 전략적 의사결정이 필요
  -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금융 자산 23조 달러 중 약 2조 3천 억 달러가 사회적 책임 수행 기업들에게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즉 기업의 경쟁 요소로서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인권, 환경, 노동, 지역사회 공헌도 등 다양한 사회적 성과가 중요시되고 있는 것임
  - 이와 같은 측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임

< 포춘誌 선정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순위(2005년 실적 기준) >

순위	2004년	회사명	업종	CSR 점수
1	3	보다폰	전자통신	72
2	1	BP	석유	71
3	2	로열 더치 셸	석유	69
4	8	EDF	에너지	61
5	15	수에즈	에너지	58
6	17	Enel	에너지	56
7	4	HSBC 홀딩스	금융	56
8	-	베올리아	에너지	55
9	38	HBOS	금융	53
10	5	까르푸	유통	50
46	68	삼성전자	전자통신	26

주 : 포춘과 영국의 기업 전문 조사기관인 어카운터빌리티 공동 조사(2006년 10월)

## □ 투표 인센티브제

- ‘투표 인센티브제’는 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를 한 유권자에게 상품권을 주거나 물건을 구입할 때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함
  - 인천시 선관위가 남동을 보궐선거(10월25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 확인증을 백화점에 가져가면 물품 구매 시 20~3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투표 인센티브제를 도입함
  - 하지만 투표 결과 이 지역 투표율은 24.7%로, 5·31지방선거 당시 인천 남동구 투표율 43.4%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더러 재·보선 지역 9곳의 평균 투표율 34.1%보다도 낮았음
  - 투표 인센티브제는 투표 참여 유도를 위한 고육책이지만, 투표권을 물질적 가치로 유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함
- 외국에서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나 패널티 제도가 도입되고 있음
  - 벨기에는 15년 이내 4번 기권시 선거인명부에서 말소하고 10년 동안 참정권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고, 아르헨티나도 벌금을 부과하고 3년간 공직 취임 및 고용 금지 등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음
  - 이탈리아의 경우, 하원의원 선거 시 투표소까지 왕복 국영철도 요금의 70%까지 할인해주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 10년 후 유망 직종

- 전망 좋은 직업 1위는 컴퓨터 보안 전문가로 조사됨
  - 한국직업능력개발 조사에 의하면, 2015년경 지금보다 임금이 가장 높아질 직업으로는 컴퓨터 보안전문가(5점 만점에 4.41점), 기업 고위 임원(4.23점), 항공기 정비원(4.20점), 산업용 로봇 조작용(4.20점), 컴퓨터 시스템 설계자(4.15점), 해외 영업원(4.12점) 등의 순이었음
  - 반면 임금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 직업으로는 노점 및 이동 판매원(2.59점), 주유원(2.61점), 계산원·매표원(2.65점), 방문판매원(2.71점), 매장 정리원(2.74점) 등의 순임

□ 세계 경제의 엔진, 아시아\*

■ (세계 경제의 원동력 아시아 경제)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아시아 경제가 세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발돋움하고 있음

-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 아시아 국가들은 수출 의존도와 미국 의존도가 감소하는 등 내수 주도 경제구조 변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수출 의존도 감소: 2001년 이후 아시아 국가들의 무역흑자에 의한 경제성장 기여도는 전체 평균 성장률 7%에서 1%p에도 미치지 못함

· 미국 의존도 감소: 중국과 일본의 對美 수출 의존도 감소를 배경으로 아시아 국가 전체의 對美 수출 비중 또한 25%에서 20%로 감소함

· 경제구조의 변화: 중국의 경우, 매년 10% 정도의 소비지출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아시아 국가들의 소비성향이 상승하고 있으며, 아시아 경제 위기 이후 국내 투자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내수 주도의 경제성장으로 경제구조가 전환되고 있음

-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 증가) 과거에는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였으나 점차 아시아 경제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음

· 2001년 이후 지난 5년간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미국은 세계 경제성장의 13%를 차지하는 데 그친 반면, 아시아의 경우 세계 경제성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 한편, 달러화 기준으로 볼 때 아시아의 세계 경제성장 기여도는 21%인데 반해 미국의 기여도는 19%에 불과함

■ (전망) 향후 아시아 경제의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설령 미국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내수 중심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미국의 경기 침체로 인한 무역량 감소가 경제 성장에 큰 타격을 주지는 못할 것임

\* 이 글은 『한경 비즈니스』(2006.11.06)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 경청의 리더십

입으로는 친구를 잃고, 귀로는 친구를 얻는다는 말이 있다. 자기 말만 앞세우는 사람에게선 친구가 떠나가고, 남의 말을 정성스럽게 듣는 사람에게선 친구들이 모인다는 얘기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의 말을 들을 경우엔 더욱이 그렇다.

스티븐 코비(Stephen R. Covey)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듣기’의 수준을 다섯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우로서 실제로는 전혀 듣지 않는 태도이다. 둘째는 맞장구를 치면서 듣는 채하는 것이다. 듣기는 듣지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전혀 마음에 남아있지 않다. 셋째는 선택적 청취이다. 나에게 필요한 것, 나와 관련된 것만 선택해서 듣는 경우이다. 넷째는 신중한 경청의 태도이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에 총력을 집중하여 듣는 것이다.

그러나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다섯 번째 수준 높은 경청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바로 ‘공감적 경청’의 태도이다. **공감적 경청이란 상대를 이해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경청하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이 가진 준거틀의 내면에 들어가서, 상대방의 관점을 통해서 사물을 보는 것, 즉 그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에 입각하여 세상을 보는 것이다. 내가 가진 경험과 사고의 틀을 벗어버리고 상대방의 생각과 위치에서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머리와 귀로 듣기 이전에 가슴으로 듣는 자세이다.

**경청의 리더십이란 바로 이러한 ‘공감적 경청’을 통하여 부하들의 마음과 사고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바람직스럽게 변화시키는 리더십을 말한다. 그러기에 경청은 말이 아니라 두 귀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한다.** 부하의 말이 비록 서툴더라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과 무언가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자세로 경청하라. 어느새 당신은 훌륭한 리더로 인정받고 있을 것이다.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특권이다.”

-올리버 웬들 홈스(1841~1935) : 미국 문필가